

##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23, 문학 OT/NT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당신의 구절이 문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앞에 오는 것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앞에 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석 과정에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생각의 흐름과 논쟁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것이 없었다면 무엇이 빠졌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을 보았고, 18장에서 모세가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이 기사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야 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인 아말렉 전투와 병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는 다소 약하고 인간적인 차원과 인간의 관점에서 묘사됩니다. 우리는 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인간으로 묘사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일을 처리할 수 없나요? 반면에 더 넓은 맥락을 보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두 장 뒤인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사람이 율법을 받는 20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문제는 작가가 거의 슈퍼 히어로처럼 묘사되는 가운데

모세를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느라 지친 약화된 개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쳐서 손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특징은 17장의 아말렉 전쟁보다 훨씬 더 후퇴할 때 8절부터 시작하여 17장의 처음 7절을 보면 모세가 물을 공급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동안 자신들의 불행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평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집트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7절, 즉 반석에서 나온 물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그 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미리 바라 불렀 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었도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이제 내러티브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 롭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매달리게 만듭니다. 글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셨는가? 내 생각에는 다음 두 이야기, 아말렉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본문인 18장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보시다시피, 모세를 일을

처리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묘사하는 것은 마치 저자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실 것을 묘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8장을 그 맥락에 배치하면 권위를 위임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법원 제도의 기원에 관한 것도 아니지만, 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약한 순간에 모세를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약한 인간으로 묘사하는 이러한 개념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의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 가운데 계시어야 합니다. 모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또 다른 예는 구약성서에서 본문의 문맥이나 논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려진 입문 시편인 시편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소 간단하지만 여전히 좋은 예입니다.

그것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누가 당신의 성소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편의 나머지 부분은 그 질문에 답합니다.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실이 온전하며 의를 행하며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자기를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악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며 맹세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며 돈을 꾸어 주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를 거슬러 신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는 우리가 역사적 배경까지 검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

기타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맥상으로는 질문-답변 형식을 따릅니다. 1절의 질문은 누가 주의 성소에 거하리이까? 거룩한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시편의 나머지 부분은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맥락이 중요하고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차이를 만드는 몇 가지 신약성경의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텍스트를 하나로 모으고 서로 다른 부분이 서로 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맥락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 및 대중 문학에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맥락이 이것을 제안하거나

이것이 맥락 때문에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글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맥락에서 무엇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문맥이 이것을 말한다거나 문맥이 이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정확하게 또는 올바르게 읽었음을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맥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 제가 사용하고 싶은 한 가지 예가 복음서에서 발견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와 바울 서신의 몇 가지, 요한계시록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컨텍스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책의 시작 부분 맨 끝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문학적 흐름과 문맥을 따라가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2장에서는 예수의 초기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 그러나 저자는 즉시 예수님의 성인 사역으로 건너뛰기 때문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는 적어도 1세기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철저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노력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3장에서는 예수의 성인 사역으로 바로 건너뛰고, 4장에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흥미로운 요약 진술을 장 끝 부분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먼저 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과 23절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약은 다음 몇 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장부터 7장까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 수훈은 그 다음 5장부터 7장입니다. 그 다음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이미 교황의 비평을 통해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예수께서 다양한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 이야기, 즉 기적 이야기 모음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자연 그 자체도 고치시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다양한 개인의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 모음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23장 23절과 24절, 특히 4장 23절이 일종의 요약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질병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질병을 고치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이야기이고,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질병과 질병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인 9장 35절에서 그가 어떻게 다시 요약하는지 주목하십시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천국의 좋은 소식이요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 번,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두 구절을 요약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께서 산상 수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치고 전파하신 내용과 8장과 9장에서 예수께서 다양한 질병과 질병을 고치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의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태는 이 부분을 요약과 확장, 두 가지 개념의 요약, 즉 왕국 전파, 치유, 이 두 가지의 확장, 그리고 그런 종류의 또 다른 요약으로 주의 깊게 정리했습니다. 5장과 7장의 산상수훈과 8장과 9장의 질병과 질병에 걸린 다양한 사람들의 치유에 관한 두 개의 큰 부분 사이에 괄호 역할을 합니다. 서신서적 문헌, 특히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을 입증하기 위해 이미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장부터 5장까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관심을 골 핵심 사상을 지적하고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준비시키기 위해 전형적인 서신적 인사말과 서문을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1장부터 2장까지 하는 일 중 하나는 그의 회심 경험을 둘러싼 특정 일들에 대한 다소 긴 서술적 설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는 1장, 특히

1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하려 하였느니라. 나는 내 또래의 많은 유대인들보다 유대교에서 더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유대교 생활을 둘러싼 다른 사건들과 그의 개종, 그리고 개종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루살렘의 일부 사도들과의 상호 작용과 그가 상호 작용하고 부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여 다른 사도들과 교류함. 그리고 문제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이야기나 이야기 부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2절의 장 구분을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1장에서 주장해 왔던 것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핵심은 1장, 11장, 12장에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종류의 장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그가 논할 내용의 요약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이나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려는 논제 또는 요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짓 교사들, 소위 유대교도들이 말하는 영역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바울이 실제로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질문을 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인간과 인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복음을 파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복음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바울이 날조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1장과 12장에서 자신의 논제를 주장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도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인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1장과 2장은 이에 대해 전개하고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유대교 생활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내가 유대교 생활에 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유대교와 율법에 순종하는 모든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진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법에 대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서 복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기반을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적어도 유대교 시절의 그의 전생이 복음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전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를 준비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개종하는 동안이나 이후에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오로지 인간의 반성이나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의 생애에 대해 그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즉시 사도들 중 누구와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들에게 문의했을 때, 우선 그들은 내 복음에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실제로 나에게 친교의 악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복음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의 삶과 그의 개종 당시 일어난 일, 그리고 그가 마침내 사도들과 교류한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11절과 12절에서 그의 논제를 논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나는 이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서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하기 전이나 도중에나 회심한 후에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일어난 모든 일은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 외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맥락을 이해하면 이 이야기의 일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의 이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는 예루살렘으로의 두 번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왜 사도들과의 대화에 관해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는 3년 후에 내가 이렇게 했고, 14년 후에 다시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점에 대해 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르친 것도 아니요, 내가 꾸며낸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 다른 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것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 다소 간단한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의 구절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사랑에 대한 찬사에 가깝거나 사랑, 사랑의 미덕을 찬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다른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사랑의 유형으로 결혼식에서 낭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아내는 결혼식에서도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3장을 읽을 때 분명해지는 것은, 만약 당신의 비전을 넓히고 넓힌다면,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논증이나 맥락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은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영적인 은사에 관해 다시 한 번 고린도전서의 문맥을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종종 바울이 자신이 취한 고린도 교회의 다른 주제나 다른 문제와 쟁점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위로. 이전 세션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는 나중에 두 가지 입소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전달했지만 편지로도 전달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성 바울로에게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알리는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하는 일은 이러한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제나 문제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영적인 은사에 관한 것, 또는 지금은 영적인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고린도인들이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거나 지적하고 방송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말하자면, 12장을 읽을 때 나타나는데, 고린도인들의 배경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던 일 중 하나는 특정한 은사, 적어도 은사 중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회중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영적인 은사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정 은사, 특히 방언을 나타내는 능력이 그들의 영적 지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서로를 더욱 멀리하는 데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받는 일부 고린도인들은 영적인 은사로 말하는 능력을 통해 그들의 영적 지위를 나타냄으로써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후원자-고객 관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분열과 같은 문제가 사회 경제적 분열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고린도의 많은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12장의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 황홀한 말, 황홀한 방언은 그들이 특정한 영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영적 지위는 물론 사회의 엘리트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거리를 두게 되고 회중의 가난한 성원들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2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영적인 은사가 분열의 표시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에 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고린도교회는 모든 지체가 동등한

타당성을 지닌 몸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물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사보다 영이 있다는 것을 더 잘 나타내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긴 선물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는 그 목록의 끝에 방언을 넣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의 균형을 맞추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은사인 방언을 자신들의 진정한 영적 지위와 심지어 사회적 지위의 표시로 높이려는 고린도인들의 경향에 대응하여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하고 다른 일을 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분야를 평준화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선물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선물이 다른 선물보다 정신을 더 많이 보여주는 계층 구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등하게 정신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14장이 30절로 끝나는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은 30절로 끝납니다. 모두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응답, 아니요.

모두가 방언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해석하지만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원합니까? 이제 14장, 13장을 건너뛰면 12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14장으로 합쳐집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길을 따르고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12장 30절에서 끝난 내용입니다. 그는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14.1에서 다시 그들에게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14장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문제는 그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언은 교회 전체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언은 교회 전체가 함께 모일 때 즉각적인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바울은 예배를 위해 모인 고린도 회중에게 주로 연설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에서 너희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예언의 은사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또 왜?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즉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바울이 여기서 반드시 방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예배, 즉 방언에 관해서 바울이 방언은 즉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할 사람이 있다는 점 외에도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되지 않는 한 모든 독자에게 즉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예언이나 예언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이해되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13장이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13장이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13장에서 묘사하고 묘사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14장에서 입증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사회적, 영적 지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방언이나 은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은사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13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약 등. 만일 그들이 그런 종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14장의 예언의 은사를 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즉시 이해할 수 있고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회중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장은 중요한 본문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문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12장과 14장 두 장의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영적인 은사의 문제. 그리고 13장은 은사가 작용해야 하는 수단과 방식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유형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물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방식으로 선물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골로새서 3장과 1절부터 4절까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과 1장부터 4절에서 우리는 바울을 실제보다 훨씬 더 신비롭게 만드는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본문을 읽었을 때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십니까? 나는 이 본문이 거의 도피주의적인 용어로 설명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현실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며 땅의 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하찮은 일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악하므로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때때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맥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3장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부분인 윤리 부분의 서문이자 시작 부분이다.

그가 이전에 일부 윤리나 명령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골로새서 끝까지의 3장은 매우 권고적이며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서신에서 많은 명령과 윤리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서간체 형식을 논의할 때 다른 편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텍스트의 경우 앞과 뒤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 텍스트를 더 넓은 논증과 맥락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될 것은 골로새서 3장 1-4장인데, 바울이 자신이 다루고 있는 이 거짓 가르침을 다루거나 신랄하게 반응하는 부분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과정의 이전 역사 비평에서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의 가능한 본질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장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2, 바울은 특히 이 가르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이 가르침의 도덕적 파산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이 가르침과 그것이 골로새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 파산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장려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증진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하세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모두 21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이런 것들을 좇으며 그 법에 복종하느냐?” 21절,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들은 모두 사용하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규례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거짓된 겸손과 육체에 대한 가혹한 처사로 지혜롭게 보이지만, 육욕을 억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숭배를 장려하는 것은 무엇이며, 죄 많은 방종을 억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까? 그것을 촉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장 1-4절이 그 답이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 대신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과 연합하여 앉아 있는 곳인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질문을 제기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파산한 가르침에 대한 대응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최악된 방종을 어떻게 억제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방식을 장려합니까? 글쎄,

이것이 3장의 나머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3장의 나머지 부분과 4장 1절까지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3장 1-4장은 이제 장의 나머지 부분, 3장의 나머지 부분, 4장의 첫 번째 절에서 풀릴 일종의 요약입니다. 바울이 일련의 악덕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앞서 바울이 그 시대에 전형적이거나 통속적인 형태를 자주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중 하나가 악덕 목록이었습니다. 악덕 목록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었으며 바울은 5절부터 여기에 하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있어. 그분은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이 우상 숭배니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그는 분노, 분노, 악의, 중상, 그리고 그 모든 악덕 목록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땅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런 종류의 악덕을 추구하지 않고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바울은 12절을 덕목 목록으로 전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여야 할 것들의 목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일련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의 일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로 도피하거나 이생의 일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육체적인 일이나 이 세상에 속한 일을 거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은 3장과 4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생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이 땅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그가 10절과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의 특징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특징인 미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피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피한다는 것은 죄 많은 이 시대, 즉 죄 많은 시대의 특징인 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적이고 경건한 삶을 장려하지 않는 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1장부터 4장을 문맥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해를 피하고 본문 내에서 바울이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그의 윤리적 권고의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를 보여주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문맥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일종의 분리된 비전의 모음 또는 일련의 이상한 이미지와 비전으로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데 실패하고 때로는 책 전체에 문맥상의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책은 매우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흩어져 있고 관련되지 않은 비전과 상징 및 이미지의 모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되는 한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입니다. 6장에서 우리는 일련의 일곱 인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6장도 6장을 그 맥락에 맞추면 6장은 이 일곱 인으로 시작하고 처음 네 인은 네 마리 말입니다.

대부분은 묵시록의 네 명의 말탄 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그림과 예술적 묘사, 심지어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장에 있는 일곱 인에 관한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다시 돌아가라는 문맥에 두는 경우, 요한이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환상을 본 4장과 5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장이 나옵니다. 왕좌.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분도 5장 시작 부분에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고 세상에 그의 왕국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 세상을 심판하는 일도 수반하는 그분의 왕국을 설립함으로써 그분의 통치와 왕국의 설립을 위한 길을 열어 주십시오. 5장에서 요한은 마침내 누군가를 볼 때까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홀연히 어린 양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일곱 인이 찍힌 두루마리 곧 봉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시니라.

그래서 6장부터 우리는 봉인되지 않은 두루마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6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제 두루마리는 봉인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억하십시오. 두루마리에는 심판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 우리는 예비적인 판단을 보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때, 각각의 인과 함께 4장과 5장의 보좌로부터 오는 예비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맨 마지막 인, 6장의 가장 마지막 인, 실제로는 6번 인입니다. 일곱 번째 인은 나중에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6장의 마지막 인인 6번 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나는 그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가 염소털로 짠 베옷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달 전체가 핏빛으로 변했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늦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세찬 바람에 흔들리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물러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니라.

아마도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끝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역적인 인류에게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15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 때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굴과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산.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양의 진노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바위와 산이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곧 역사 마지막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곧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설 수 있겠어? 다시 한번, 6장이 그 질문으로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으니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 내 생각에는 7장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누가 설 수 있나요? 그리고 7장에서는 144,000명을 인봉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나는 전쟁에 나가서 갈등을 겪는 군대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들이 무기를 들고가 아니라 고통받는 증언을 통해 그렇게 하지만 말입니다. .

그러나 7장의 요점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맞설 자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6장은 다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는 슬기로운 환상일

뿐만 아니라, 다시 6장은 4장과 5장, 즉 보좌의 환상과 일곱 봉한 두루마리의 환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6장에서 봉해지지 않은 두루마리와 예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4장과 5장의 두루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누가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특히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7장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자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서리라. 따라서 이것들은 신약이나 구약 본문의 문학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당신이 단일 구절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단락이나 텍스트를 다루고 있는지 묻고 문맥 내에서 문학적 흐름 안에 당신의 구절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의 흐름대로? 그 전에 오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뒤에 오는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가? 거기에 없었다면 무엇이 빠졌을까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직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해석 과정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이것이 단어 연구나 다른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텍스트를 더 넓은 맥락에 배치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말했듯이, 맥락이라는 단어에 대해 단지 엉뚱한 말을 하지 말고 맥락이 이것을 요구한다, 맥락이 이것을 요구한다, 또는 맥락이 암시한다, 또는 나는 맥락 때문에 이 견해를 견지한다.

문맥에서 이것이 내가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방식임을 나타내는 것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루고 있는 구약과 신약 본문의 더 넓은 맥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구절이든, 절 수준이든, 문장 수준이든, 단락이든, 더 넓은 섹션이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다음 두 세션으로 넘어가서 성경 해석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약 저자들이 구약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며, 신약 저자들이 구약 본문을 활용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약성서까지 아주 멀리까지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구약성서 인용문을 찾지 않고서는 마태복음의 처음 두 장을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책이 몇 권 있지만 계속해서 구약의 인용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 저자들은 구약성서가 자신의 기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온 새로운 계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시간을 갖고 신약 저자들의 구약 사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탐구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구약과 신약이 더 넓은 정경적 맥락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은 약속과 성취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우리는 신약성서와 그 저자들이 어휘, 개념,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롭고 독특한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구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신약성경 저자들은 이 새로운 계시를 구약성경과 구약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정경적 관계, 즉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신약이 구약 본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약속된 것의 성취와 절정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옛 언약의 성취, 즉 구약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로 보여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 자신과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신약성서 저자들은 구약성서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본문과 신약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약성서에서 일종의 하위 본문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구약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와 끊임없는 상호텍스트 관계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성경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방법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이 신약에서 사용된 다양한 방식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신약성서의 구약에 대한 논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신약에서 구약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야 할 주요 질문과 제기된 주요 질문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의 용법을 어떻게 연구해야 합니까?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약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작동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의 사용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그러면 먼저 신약에서는 구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신약성경의 구약성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것이 한동안 중요했지만 실제로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착된 시기가 지난 20~30년이었던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책 형태로 나온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반적으로 다루거나 신약의 특정 책들을 다루고 구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책은 온갖 종류가 있습니다. 방법론 등을 논의하는 책

저는 우리가 논의한 내용 중 일부를 참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의 용법을 어떻게 연구해야 합니까? 우선, 몇 가지 예비 관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서에서 구약성경에 대한 신약 연구가 시작되면서 일반적으로 일련의 질문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신약성서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질문을 던진 구약성서의 처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구약성경 본문을 활용하는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본 질문 중 일부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저자는 어떤 텍스트 형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저자는 주로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저자가 칠십인역을 참고하여 그림을 그렸습니까?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성경을 당시의 공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은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서 자주 그가 70인역에 매우 가깝거나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XX 또는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 신약성서의 구약 연구에서 학생들은 종종 바울, 마태, 베드로, 요한 또는 누구든지 어떤 본문 형식을 사용하는지에 매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마소라 본문과 유사한 히브리어 본문을 인용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는 본문에 그림을 그렸습니까? 그는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과 유사한 본문을 인용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바울이 둘 중 하나를 인용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가 칠십인역이나 히브리어 본문을 인용했다면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즉, 신약성경 저자가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본문 형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저자는 구약의 문맥을 인식하고 구약을 사용하는가? 즉, 저자, 신약의 저자가 구약의 본문을 인용할 때 그는 오직 그 구절, 그 본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맥락을 알고 있는 것 같나요? 예를 들어, 바울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한다면 그는 42장이나 2절을 알고 있을까요? 그는 42장의 전체 맥락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넓게 보면 분명히 바울은 자신의 성경에 장과 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장과 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둘러싼 전체 맥락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약성경 저자들이 단순히 개별 본문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텍스트 조각을 살펴보고 뽑아내는 것일까요? 그 예가 마태복음 1.23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자가 구약성서의 본문이 나오는 더 넓은 맥락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본문을 가로채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는 이사야 7장의 맥락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자들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의 일부를 인용할 때 구약성경을 사용합니까? 한 구절이든 몇 구절이든. 그들은 그것이 발생하는 더 넓은 맥락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약성서를 언어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과 부분을 찾고 있는 걸까요?  
셋째, 그것과 관련하여. 두 번째가 사실이라면.

더 넓은 맥락을 인식하고 텍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세 번째 문제는 신약성서 저자들이 그 문맥을 존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당 문맥의 원래 의미와 일관되게 해당 구절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문맥을 인식하면서도 그 구절을 사용하여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구절이 의미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구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문맥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신약성서 저자들은 그들이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구약성서 구절의 원래 의미의 맥락을 존중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제기할 것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사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제기된 중요한 문제와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다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고려해 보겠습니다.